

백엔드 데브코스 4기 3차 프로젝트 피어리뷰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름	원건희
리뷰 인원	5
과정명	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
리뷰 기간	2023.10.12 ~ 2023.12.07

읽기 전 유의해주세요

- 모든 내용은 직접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일부 정성적인 내용은 더 나은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데브코스 생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읽고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누가 나서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진단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졌구나”
- 타인의 의견을 품고, 수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어른’과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어리뷰 결과

1. 기술 역량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5	0	0	0	0

2. 협업 스킬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4	1	0	0	0

3. 문제 해결 능력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5	0	0	0	0

4. 자기 주도 학습 태도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4	1	0	0	0

5.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잘 이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 기여하였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0	0	0	0

6. 프로젝트를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며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1	0	0	0
---	---	---	---	---

7.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0	0	0	0

8.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거나 공유하는것에 적극적이었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0	0	0	0

9.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개발자인가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1	0	0	0

10. 함께한 프로젝트 경험(장문형 답변)

문제를 깊게 분석하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 태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트러블 슈팅 과정이나 새로 알게 된 지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셔서 협업과 학습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엔드 개발 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디자인과 같이 프로젝트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을만큼 열심히 적극적인 태도로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백엔드 팀장으로써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팀원입니다.

프론트와 항상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팀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팀원입니다. 프론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빠른 시일내에 구현해주고 수정해주어 구현 능력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 스킬도 좋아 의사소통이나 협업할 때에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팀원인 것 같습니다.

백엔드 팀장을 맡으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 소통에 큰 기여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 측에서 요청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여 페이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엔드 팀장으로서 프론트엔드 팀장과 각 조직 사이에서 개발과정 상 논의가 필요할 때 빠르고 적절하게 협의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이슈 추적 및 모니터링에도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측에서 제보했던 이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대한 양의 로그들을 살펴보고 결국 원인을 찾아 수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구현이 완료된 페이지에 대해서도 더 좋은 UX를 위해 디자인 수정을 제안해주시는 등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셨던 팀원이었습니다.